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9년에 수행한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 연구¹⁾’에서는 학교규율과 관련하여 자율규율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몇 가지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규율들처럼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성격을 지닌 규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민주시민의 훈련과정으로서의 학교생활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율의 제·개정 절차를 민주적으로 바꿔 그 절차가 교육주체들이 규율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삼음으로써 여러 규율들이 실질적인 권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셋째, 규율의 적용이 합리적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규정을 공론화시켜 교육주체들의 합의 아래 확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규율은 권위를 가지고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즉결처분과 같은 교사체벌, 폭력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결과보다도 동기를 중시하는 규율의 적용방식이 정착되고, 도덕적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내

1) 동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위탁연구과제로 천세영 등이 수행하였다.

천세영, 이우경, 신병철, 조금주,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에서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해결의 방안이 뒤따르도록 조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학교 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규율을 제정함으로써 규율의 제·개정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바꾸어나갈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제반 관련자들간의 이해나 인식의 차이가 규율의 자율적인 제·개정이 쉽지 않은 많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의 의견차이를 극복하거나 조화시키면서 무리 없이 학교 규율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해나갈 수 있는가를 탐구할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었다. 즉, 학교규율의 자율적인 제·개정의 과정을 연구하고 실제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이해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며 그 차이의 극복이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가를 찾아보며 그 결과 민주적으로 학교 규율을 제·개정함으로써 학교 생활과 학교 교육의 민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청소년 문제 혹은 교실붕괴로 표현되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 기반으로도 작동할 것이다. 또한 통제와 감시 위주로 이루어지던 학생생활지도를 교원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조함으로써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1999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유연구과제로 수행되었던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연구』의 후속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전년도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여 자율적인 학교규율 제정 운동을 펼쳐 봄으로써 학교규율의 바람직한 제정과 운용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자는 목적을 지닌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2000년도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 나라 단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규율의 제정 과정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규율의 성격을 정리하고, 학교 규율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학교별 학교 자율 규율의 제정 과정 및 제정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규율을 자율 제정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교 규율을 단위학교별로 자율 제정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조사한다.

셋째, 학교 규율 자율 제·개정에 관한 시도에 필요한 이론적인 작업 및 사회적인 여론 환기를 통해 학교 규율 자율 제·개정의 가능성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타진하고 이후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3. 연구 방법

첫째, 현재 학교 규율을 자율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율 제정 과정 및 운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서울

과 지방도시의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학생, 교사들과의 면접을 실시한다. 대상 학교로는 학교 규율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서울의 J중학교, 충남의 M중학교, C시의 B여자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 규율에 대한 준법성 및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학교 규율 자율 제정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 외국 학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모색한다.

Ⅱ. 학교규율의 성격변천 및 외국의 동향

1. 학교규율의 성격
2. 학교규율의 개념 변천
3. 외국에 있어서의 학교규율의
개념 변천

II. 학교 규율의 성격 변천 및 외국의 동향

1. 학교규율의 성격

가. 효율성과 통제의 성격

학생의 신분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를 위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학교 규율은 필요하다. 개별 학습이 아닌 집단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심리적 특성상 모방성이 강하고 같은 또래끼리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모나 치장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학업을 방해하고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학교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태도들은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나치게 통제적인 학교 규율은 학생들의 자율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제와 간섭 위주의 학교 규율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일례로 두발 자유론자들은 두발이 청소년 비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며, 자유화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자율과 창의성을 키워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 또한 ‘단정한 머리’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며, 자신의 머리를 자유롭게 꾸미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규율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지

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전면적 자율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제한적 자율화를 실시할 것인가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나. 훈육으로서의 성격

교육은 엄한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며, 규율 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일 수 있다. 학생 서로간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기숙사 생활을 기반으로 엄한 집단생활의 규칙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과 견주어 볼 때, 자유로운 학교 생활만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과 문화적 풍토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규칙들을 세우고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 통제기구로서의 성격

프랑스의 M. Foucault는 사회 교정기관으로 감옥과 군대, 정신병원, 그리고 학교를 그 대표적 예로 들었다. 영국의 Paul Willis 또한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교는 노동자를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학자들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학교가 통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학교교육은 자율보다는 통제의 논리 위에서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미 탈산업사회로 접어든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강한 학교규율을 그대로 지속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미래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교사와 학생간의 권력관계

이제까지 학교에서의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면에서나 지도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가 폭넓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사가 학생들에 지녔던 권위는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교사만큼의 학식과 학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 또한 사라졌으며, 교사들이 지녔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존의 학교사회와 비교해 볼 때, 교사들의 권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정해 놓은 규율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 규율을 지킬려는 만무하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 규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제 교사의 권위로써 학생들이 학교 규율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 학교 규율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의해서라기 보다 학생들 스스로 지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이를 지키는데 있어서 교사의 지도와 조력이 필요함을 학생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학교규율의 개념 변천

15세기 이후 중세의 학칙은 학생에 대한 감시, 밀고, 체벌 등을 주 요소로 한 것으로서 학생을 어른과 대비시켜 훈련하고 규율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18세기가 되면서 학생은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아 중세와 같이 학생에게 치욕적인 벌을 가한다든지 하는 관념은 없어지게 된다. 19세기가 되면서 교육의 개념이 규율이나 규칙에의 복종이라는 개념과 구별되면서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키운다는 관념이 자리를 잡는다.

이와 같이 교육관과 학생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아울러 인권운동이 고조되면서 학생을 과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고의 억압적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3. 외국에 있어서의 학교규율의 개념 변천

가. 일본의 경우

군국주의 시절 일본은 특별권력관계론에 따라 아무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도 학교의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고,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엄하고 자세한 것이었다.

특별권력관계론 이후에도 재학계약설, 학교부분사회론, 교육권상의 학교책임론 등에 의해 학교에서 학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차대전후 민주적 교육을 표방하면서 학칙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 생각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학생의 규범의식 저하에 대한 우려로 학칙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교내폭력 등으로 관리 규칙으로서의 학칙이 정비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칙 위반과 학칙에 대한 반항, 그리고 그에 따른 학칙의 강화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부등교나 이지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칙을 바로 세우자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아동권리조약의 비준이었다. 변호사 단체에서 학칙문제를 다루는 인권옹호심포지움이 열리고, 1988년에는 아동인권변호단 주최의 심포지움에서 아이들이 『우리들의 인간 선언』이라는 선언을 하게 된다. 일교조도 학칙 문제를 다루면서 학칙 개정 운동을 전개한다. 1988년 문부성도 지나친 학칙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각 학교에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학칙을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일어난 한편,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 학칙을 둘러싼 논의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나.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학생에게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학생의 복장 등도 자기표현의 일부로 보아 학칙에 의해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학칙의 제정과 실행에서 교사 등 규칙 제정자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게 되었다. 즉 각 학구에서 정한 학생 행동규범은 주의 법률 및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정해졌고, 특히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과 불복 신청 등을 포함한 절차, 학생이 가진 권리의 내용 등을 명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헌법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학생의 자주성을 신장하고 개성을 존중하면서, 자유 속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교육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학칙 역시 계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는 이익사회(계절샵프트)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 스웨덴의 경우

학칙을 계약의 원리에 의한 합리적 규칙으로 보는 관점과는 다른 방향에서 학칙을 보는 관점이 있다. 이는 학교를 하나의 작은 사

회로 보고 학생을 학교라는 민주사회의 구성원 내지 주체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여기서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 운영에 참가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학교라고 하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참가하는 자체가 장래의 전체 사회의 운영자로서 자질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교육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1969년부터 학칙이 학부모 대표와 학생을 포함한 학교운영협의회에서 토의할 것을 기초학교학습지도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우리 나라의 학교 규율 관련 법률 규정 및 문제점

1. 학교규율 관련 법률 규정
2. 학교규율 관련 법률 규정의
문제점변천
3. 학교규율제도와 현실간의
괴리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III. 우리 나라의 학교 규율 관련 법률 규정 및 문제점

1. 학교 규율 관련 법률 규정

우리 나라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은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는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와 같이 학칙은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학칙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한 우리 나라의 현행 교육관계법은 과거 학칙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학교의 형식적 질서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하며, 주로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 정도로 일반에 인식되어 온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비전 2002:새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2000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에 의하면 학칙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규칙 정비의 민주적 절차 마련

(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

(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범을 제정·준수하는 학교문화 조성

0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 최대한 반영

0 학생회, 대의위원회에 의한 학교규칙 심의 : 규정 준수 의지 제고

(2) 학생 중심의 자율적 준수 풍토 조성

(가) 학급회, 학생회를 통한 주간 또는 월간 모범학생, 모범학급 선정하기

(나) 학생 자율선도반 활동 활성화 유도

- 0 모범 학생뿐만 아니라 요선도 학생 중 영향력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구성
 - 0 요선도 학생들이 술선해서 규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순화되도록 유도
 - 0 전담 지도교사를 지정, 참여 요선도 학생이 영웅시되거나 모범학생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 (3) 학교규칙의 홍보 강화
- (가) 훈화, 학급활동 시간, 학생회 등을 이용한 전교생 대상 홍보
 - (나)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 등을 이용한 학부모 대상 홍보
- (4) 학교규칙의 엄격 적용
- (가)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장의 의지 천명
 - (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학칙 적용

따라서 적어도 우리 나라의 법률이나 교육 당국의 의지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 공동체에서 학칙이 지켜지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칙에 대해 이와 같이 법률적 교육 행정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온 민주화와 21세기 창의적 인간 양성을 위한 최근 우리 나라 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 및 학생들의 인권 의식의 신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규율 관련 법률 규정의 문제점

위에서 학칙과 관련된 우리 나라 법률과 교육 행정 당국의 의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정 절차와 적용 방식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여러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 학교규율의 제정 절차에서의 문제점

학교 규율 혹은 규정의 내용은 실상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육적으로 큰 사건이 나거나 교육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어서 학교 규율이 문제가 될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 규율의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온다. 이 공문에서 친절하게도 규율의 예시가 담겨져 있는데, 이 예시 규율이 거의 대부분 수정 없이 각 학교의 규율로 자리잡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 규율은 대동소이하다.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교육청의 공문에 담겨진 예시 규율에 의해서 뼈대가 잡힌 학교규율은 가끔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실제로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교 규율 혹은 규정에 대한 개수정의 절차가 일단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웬만해서는 규율과 규정이 개정, 수정되는 일은 없다. 일정한 시기도 없이 학년초가 되면 각 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검토해서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때가 바로 규율의 개, 수정 시기가 된다. 이런 일을 총괄하는 연구부에서 각 부에 이전의 학교규정집을 한 부 씩 나눠주고 문제가 있는 규정들을 검토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한다. 각부에서 검토된 규정, 규율들은 이렇게 수합되어 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교 규정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몇 해에 한번씩 인쇄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학생 생활과 관련된 규율은 선도부에서 담당한다. 부장이나 기획 교사가 살펴보고 또 관심있는 교사가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넣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일

괄적으로 예시로 내려오는 규정을 뼈대로 학교 사정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서 개, 수정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학교장이 결재를 통하여 결정하는 형식이다.

학교의 제규정의 개정, 수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창기는 운영위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실제로 학교 규정은 학교의 소극적 태도와 교육청의 학교장악력으로 말미암아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내용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하는 절차도 대단히 즉흥적이고 단선적이다. 따라서 이런 규율 제정 절차에 교사들의 의견이 끼어 들어가지 않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과감히 개, 수정안으로 제시하기는 무리다. 규율과 규정에 대한 일정한 공론화의 계기도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끼어 들 여지는 더더구나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사실상 비밀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학교 규율은 여러 사람들의 무관심을 틈타 실제로 교육청과 교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학교규율의 적용 방식

규율 자체가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 채 위로부터 강요되기 때문에 교육 주체의 합의 과정이 없으며, 자연히 규율로서의 권위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규율이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학교 내에서 규율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통제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학교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선도부 소속 교사가 그 한 주체이며,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면서 반 학생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또 하나의 주체이며, 그 나머지 교사가 또 한 주체이다.

학교 경찰로서의 선도부 교사들은 학교 내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율을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하여 규정대로 지도하는 편이다. 그러나 규율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교사들마다 다르며, 규정위반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 또한 다양하다. 지도 방식은 체벌부터 시작하여 관용에 이르기까지, 학생부로 호출을 통한 엄격한 규정 적용부터 기합이나 심부름,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의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벌이나 폭언이다. 체벌이 심한 경우는 거의 즉결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담임교사도 학생들의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권자로서 대단한 존재다. 실제로 학생들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는 담임교사이며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책임도 담임교사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의 규율 위반의 경우에 대부분 담임교사에게 통보되고 경미한 경우는 담임선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폭행이나 드러난 시험 부정행위 등과 같이 공개된 경우에는 선도부를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당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경미하거나 애매한 경우(예를 들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등)는 담임의 재량이 발동할 수 있다. 담임교사에 따라 규정 적용의 방식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담임의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과 인간적인 정으로 연결되어 공식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대신, 체벌, 기합부터 시작하여 훈계,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담임교사에게 부여된 학생 교육의 책임이 실제로 대단한 만큼 일반 교사들은 담임교사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선도부 소속도 아니면서 담임교사도 아닌 경우, 나머지 교사들은 합의도 되지 않은 규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지 학생생활지도에 대부분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래도 우연히 규정을 어긴 학생들을 만

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선에서 체벌이나 훈계로 해결하거나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징계 사안이 사회봉사 이상일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거쳐 징계정도를 결정한다. 선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부장이 사무를 주관하며, 교무부장, 윤리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학년 부장과 징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심의 전에 담당교사, 담임교사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부 담당교사가 검사역을 담임교사와 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역을 그리고 선도위원회 위원들이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꼴이다. 그러나 선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율의 적용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처벌 규정이 실제로는 숨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점수에 반영이 되고 내신성적 중에 출결사항이 점수로 반영되면서 사고 근태(지각, 조퇴, 결과, 결석)가 학생들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사고 근태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선도처분, 즉 퇴학은 실질적으로는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퇴학당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는 소위 문제 학생들을 가능하면 학교에서 퇴학시키지 못하게 공문 지시를 내려보내고 있다. 아마도 학교에서 제적당한 소위 불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처벌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이다. 명분이야 학생들의 교육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학생의 문제점을 교정하려하거나 문제점

을 발견하여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없이 그대로 학교에서 수용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회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파렴치한 행위, 범법행위까지도 학교에서는 적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 현상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학칙과 관련된 법률 및 교육 당국의 의지는 학칙의 민주적 제정 및 그 준수에 있어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만큼 발전적이고 성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즉 법률적 행정적으로 명시된 ‘통제’ 위주에서 ‘자율’ 위주의 학교규율 및 학생 ‘선도’ 위주의 학교규율에서 학생 ‘참여’ 위주의 학교규율로 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민주화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21세기를 지향한 교육 개혁 정책 등으로 법적으로는 학칙에 관한 규정이 나름대로 정비되었으나, 학교 현장의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학칙은 그 제정 및 적용의 과정에서 여전히 학교 일방적이고,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의 민주적 학칙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여전히 학교에서는 통제와 선도 위주의 잘 모르는 규정,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 온존하고 있다.

3. 학교규율제도와 현실간의 괴리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가. 괴리 현상의 원인

일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 자세를 우선 들 수 있다. 교사들은 통제와 선도 위주의 학칙을 여전히 선호하거나 자율과 참여 위주의 학칙에 대해 무관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와 선도 위주의 학칙을 적극 옹호하기도 한다.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율과 참여가 성숙하기 어려운 학교의 여건이 있다. 대도시의 학교는 여전히 맘모스 학교이고, 교실은 여전히 과밀학급이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상징되는 학교 전반의 교육과정 속에서는 통제와 선도가 더 익숙하고 편한 것이 된다.

형식적인 장학 행정도 중요한 원인이다. 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에서 실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또 많은 토론 및 대화와 설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교감이나 학생부장을 소집하여 일방적 지시 형태의 회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보수적인 자세를 극복해야 한다. 학생인 자녀에 대한 과보호와 대학가기 위한 공부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생의 자기표현이나 개성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거나 나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IV. 학교 규율 자율제정 사례분석

1. 서울 J중학교
2. 지방 M중학교
3. C시 B여자 고등학교
4. 사이버공간의 두발자유화운동
5. 사례분석에서 얻은 시사점

IV. 학교 규율 자율 제정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학교규율의 문제점을 보완 극복하고자 현재 학교 규율을 자율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율 제정 과정 및 운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지방도시에서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를 선정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자율 규정 제정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1. 서울 J중학교

서울에 소재한 J중학교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학교 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 학교에서 ‘용의·복장’의 자율화를 이루기까지의 사례를 상세히 살펴 보았다.

가.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 실시 배경

(1)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

오늘날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용의 복장을 자율화’가 단연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내놓는 공

약 1순위는 용의 복장의 자율화이다. 언제부터 내려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머리 길이에 대한 제한은 물론 머리핀과 스타킹·신발 색깔마저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학생 생활 규정이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빼앗는 가장 큰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교사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용의복장 및 민주적인 생활태도 지도)가 어렵다고들 이야기 한다. 매스컴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서 틈만 나면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려 하는 학생들, 학교 규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기준이 교사들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각양각색이고, 그 점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킬 따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선 교문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을 ‘막무가내로’ 통제하는 교사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을 신봉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며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기 쉽고, 그러한 불신은 전체 교사들에 대한 비난과 불신으로 발전하는 경향조차 있다.

(2) 상호존중과 민주주의, 자율적인 실천 실험

J중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을 해결해주고,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의 복장 자율화’를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학생회 주도로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용의 복장에 관련된 규정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지키도록 하되, 부모님과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합의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민주

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와 신뢰를 회복하고, 자율과 자치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련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정(생활지도 규정)이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심화시켜 왔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불신과 통제와 처벌을 기본 원리로 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용되어왔던 생활지도 규정들, 권위주의 시대의 그것들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는 두발·복장 관련 규정들이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관계를 소원하게 하며, 자율과 민주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나.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 추진 내용

(1) 추진 목적

- ①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절실한 요구인 용의 복장 자율화를 부분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대화와 토론, 공동체적인 합의의 문화를 활성화시킨다.
- ③ 학급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토론하고 결정하여 자

울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④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도록 한다.

(2) 추진 원칙

- ① 선거 공약의 실천이라는 명분으로 학생회장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게 한다.
- ② 지도교사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 ③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풀어내도록 한다.
- ④ 학생대의원회와 학급회, 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조화롭게 참여한다.
- 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추진 절차

- ① 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요구 제기
 - 두발 및 복장 자율화에 대한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모든 후보가 공약함
- ② 전교 대의원회에서 논의
 - 제 1회 대의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선거 공약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 학생들은 무조건 전면 자율화를 선호하였고, 당장 자율화해야 한다는 학생들이 다수였음.
-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담당 교사)
(논거 : 용의·복장 문제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모님의 동의와 선생님들의 교육적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학생회장 명의로) 설문지 만들고 통계를 내어 그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함.

③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설문지 작성

- 학생회장이 초안 작성, 특활부장과 생활지도부장이 조언하여 설문지 완성
- 설문을 하는 학생회장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취지와 목적을 밝힘
-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의 설문으로 함

④ 설문조사 실시

- 학생과 학부모는 연기명, 교사는 개별 설문 실시.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하도록 함.

※ 설문 응답시에 학생과 학부모가 토론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함 : 설문지를 집에 가져가서 학생과 학부모가 토론을 하고 합의된 사항을 하나의 설문지에 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연기명으로 확인 서명 날인하게 함. 학생과 학부모가 나란히 도장을 찍게 함.

⑤ 설문지 수합 및 응답 내용 분석

- 회송된 설문지를 학급별로 수합하여 학생회 임원들이 책임지고 통계를 냄.

※분석 결과 : 두발 복장을 자율화(근소한 차이로)하나 무쓰나 스프레이 및 장신구, 원색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설문 결과가 나옴.

⑥ 설문 분석 결과 공개

- 분석 결과 근소한 차이로 자율화가 다수임을 학생과 교사들에게 공개함

⑦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

- 설문 결과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조건부로 승인함.
-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경과 및 설문결과 보고
- 운영위원회에서는 근소한 표차에 의한 자율화 결정임을 들어서 다음의 조건을 달아 승인함.

※조건(학교운영위원회의 권유)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학급회와 대의원회)
- 5~6개월 뒤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여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 한다.
- 학교 생활에서 공중도덕과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잘 지키도록 노력한다.

⑧ 학급회의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학급회 시간에 운영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내용을 고지하고, 결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침(‘시범 운영 기간 동안 잘 지키자’)
-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위반자가 나올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급별 토의

⑨ 전교 대의원회의에서의 결의 모으기

- 학급회의에서 논의해 온 사항들을 모아 전체 학생회 차원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함
- 위반자에게는 일정한 벌칙 부과, 매월 용의복장 모범생을 뽑아 칭찬하기 등

⑩ 대의원회 결과 공고 및 학교장의 선포

- 대의원회 결과를 널리 알리고, 학교장은 조희시간에 용의복장을 조건부로 자율화할 것임을 알림.

⑪ 전교생의 실천(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

-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마련함 규정임을 강조하여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하고 조언함.
- 학생회와 학급회의에서는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계도(방송 등)

※ 도덕과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용의·복장 자율화의 의의와 중요성을 일깨우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논술 문제를 출제함.(3학년)

⑫ 학급회의를 통한 실천 결과 평가 : 11월

- 학급회의에서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 묻는 회의 자료를 배부하고, 학급별로 잘 지킨 학생과 못지킨 학생을 뽑아보게 함.

⑬ 2차 설문조사 실시

- 부분적으로 자율화 한 규정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묻는 설문 내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설문 방법과 결과 분석은 1차 설문조사 때와 동일함.

⑭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및 심의

- 학생회장은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운영위원들은 심의한 후에 자율화를 잠정 확정하되 학생들에게 특별한 권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의함.

※심의 결과 : 용의·복장 부분 자율화를 확정함. 학생들은 부분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학생회와 학급회에서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권고함.

⑮ 대의위원회와 학급회를 통한 실행 결의 모으기 : 안전 자료 제시

- 대의위원회 : 2차 설문조사 결과와 학운위 심의 결과를 함께 담은 논의 안전을 모든 대의원에게 제시함,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가능한 몇 가지 제재 방안을 제시함.
- 학급회 : 2차 설문조사 결과와 학운위 심의 결과, 대의원회 결과를 함께 담은 논의 안전을 모든 학급원들에게 제시함. 학급별로 자율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의를 모음.

⑯ 학교장과 학생회장의 선포

- 용의복장이 자율화를 계속 시행할 것임을 선포하고 잘 지킬 것을 당부

다. 프로그램 진행 결과 평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머리 길이는 체형에 맞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교복 상의 남방 색깔도 핑크색이나 하늘색도 가능하

게, 스타킹이나 신발도 다소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쓰나 스프레이, 매니큐어, 액세서리 등은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소수 위반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훈계할 수 있게 되었고, 몇몇 사람의 위반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의’ 규칙이 다시 과거의 통제하는 규칙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음을 강조하면 수긍하고 있어 위반자가 크게 줄고 있다. 이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규칙, 합리적인 근거와 정통성을 가진 규칙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학교 규칙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생회칙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들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더욱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프로그램의 지속 성공을 위한 조건

한편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적 정착을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원칙 혹은 유의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프로그램 진행의 전 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도교사만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치밀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구성원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율과 자치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의식을 견지해야 한

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은 구성원 일부의 주장이나 편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철저히 민주적인 원리와 원칙,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자율화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율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의 실행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만이 절대적일 수 없다.

다섯째, 교사, 학생, 학부모는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전개되는 토론과 의사 결정, 결과 보고는 철저히 공식성을 띤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 각 단위 주체들의 자세와 책임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학생회장은 전교생과 다른 주체들 간의 공식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특히 지도 교사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학급회장들은 학급회와 대의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담임과 학생회 지도교사의 지도 필요)

셋째, 지도교사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조화롭게,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조언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와의 대화와 설문 응답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최대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회의 건의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권고나 제안의 형태로 학생회(대의원회)에 공식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으로 거둘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가장 절실한 생활상의 요구를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둘째, 학생들의 주인의식과 자율역량이 커지고, 학교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두발·복장을 둘러싼 교사들의 과잉 단속 등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짐으로써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졌다.

넷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었다.

다섯째, 구성원(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민주적인 토론과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과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여섯째, 학급회와 대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조직들이 참여하는 회의체계의 중요성을 체험으로 배우며,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일곱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견을 두루 모아 내고, 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여덟째, 민주주의 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두발과 용의복장과 관련한 학교의 자율 규율 제정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성원들이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기간을 확보하도록 유의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 결의로 일시에 전면적으로 자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진행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교사들의 명확한 지도조언이 필요하며, 학생회 차원에서 제재 방법을 마련해서 실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J 중학교의 자율규율 제정과 관련한 각종 관련참고 문서는 부록#1 참조)

2. 지방 M중학교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한 M중학교는 규모는 작지만 몇 년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학교규율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한 여교사가 전하는 다음의 사례는 학교규율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교사 및 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겪은 갈등의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제정한 규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교사는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학교공간에서 인간답게 다루어져야 할 고귀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M중학교는 전교생이 250여명에 전체 교사가 16명인 조그마한 학교이다. 작년에 7학급이었고, 올해 한 학급 늘어 8학급이지만 부장(예전에 주임)교사는 교무부장 한 명뿐인 학교인 것이다. 아이들이 학생부장으로 알고 있는 나는 실은 ‘무늬만’ 학생부장인 셈이다.

작년 초 ‘무늬만’ 학생부장이 되고 나서 학교 규율을 재정비하려고 여러 학교의 규율들을 비교해 보다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지난 세월이 다 헛된 것이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선도규정을 만들려고 여러 학교 선도규정이나 징계규정을 비교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런 일에 무심했던 나의 지난 교사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을 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졸음을 참을 수 없거나, 집안 사정으로 조퇴를 여러 번 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 어느 고등학교 규율의 경우 비오는 날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우산을 씌워줘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손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를 경우 사흘간 교내 봉사(에) 처해지는 학교도 있고, 아무리 추워도 십만여 원이 넘는 학생용 맞춤 코트 외에는 잠바류 등의 덧옷을 입을 수 없도록 한 학교도 있다. 현재의 학교 규율대로라면 아이들은 완전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아둔 채 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직생활 10년만에 학생과 일은 처음이라서 더듬더듬 제작년의 제 규정들을 뒤져보았다. 직선제 학생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다. 재작년에 이 학교로 옮겨왔을 때는 이것저것 살펴볼 겨를도 없었거니와 가끔 대의원회 비슷한 걸 하기에 있는 줄만 알았다. 알고 보니 학생자치비로 책정된 예산을 써야 하므로 가끔씩 반장, 부반장들을 모아 놓고 빵이나 우유를 사주거나, 스승의 날 행사를 잘 하도록 지시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정도의 회의를 했던 모양이었다. 다른 학교 학생회칙을 부랴부랴 찾아서 직선제 총학생회를 구성할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3월말이었다.

작년에는 세 명의 총학생회장 후보가 하나같이 복장규제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작년까지 학생부의 복장규제가 워낙 엄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학교의 제 규율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며, 또한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규율이 바로 복장규정이다.

제1회 총학생회가 출범한 작년 4월 초 우리는 선거공약의 실천을 위한 복장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작 뒤져보니 문서화된 복장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간의 복장규제

는 순전히 학생부장 개인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복장규정 개정이 아니라 복장규정 제정인 셈이었다.

아이들은 첫 번째 학생총회를 학급별 분할총회로 개최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복장규정을 의제로 삼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 다소 완화된 복장규정을 생각했을 뿐, 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복장규정을 마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실의 벽이 워낙 높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새로운 복장규정을 어기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도 잘 논의하도록 당부했다. 아이들은 1. 두발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복장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신발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머리핀, 머리끈, 기타 악세사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새로운 복장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동일 의제로 학급별 분할 총회를 실시했다.

총회 결과 아이들은 두발규정에 대하여, 종전에 귀밑 1cm로 제한하던 여학생들의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 묶을 수 있도록 했고, 짧은 스포츠형으로 제한하던 남학생들의 머리는 눈썹 위까지는 얼굴형태에 어울리게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겨울에 니트 조끼를 교복 안에 입을 수 있도록 했고, 운동화의 색깔 규제를 없애고, 비싼 농구화나 지나치게 커다란 운동화만 신지 않는다면 키가 작아 고민인 친구들을 위해 고무 굽의 높이가 좀 있는 운동화 정도는 신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거나 무스를 바르는 것은 안되고, 핸드폰은 규제하되 뽀뽀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해 학생 총회는 ‘중학생의 핸드폰 사용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는 핸드폰을 가진 학생이 절반쯤 되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거의 공격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 현실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토론 결과 학생들은 학급별 내규를 만들어 핸드폰 사용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일과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강제로 빼앗지는 않는다는 큰 원칙만 정했다.)

학생총회 결과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부에서는 새로운 복장규정안을 만들어 교무회의의 1차 심의를 거친 뒤 학교운영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교무회의 심의 때 다소 생각이 다른 선생님들의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총학생회 산하에 자율선도부를 두어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복장규제를 하도록 한 대목에서 마음을 놓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복장규정안을 지지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복장규정을 어길 경우, 세 번까지는 경고, 또 다시 세 번 더 누적되면 얼굴 사진을 확대하여 교내에 게시하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시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정작 나와 총학생회 회장단이 진땀이 나도록 마음고생을 했던 것은 학교운영위의 심의과정에서였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수준도 결코 보수적인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 못지 않게 보수적이어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교장이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조차 심각히 고려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학생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반영되어 우리학교는 새로운 복장규정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바꾸어낸 것은 학교의 제 학생관련 규율 중에서도 가장 사소한 복장규정일 뿐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노

력으로 복장규제를 완화하였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1학년들이 만든 우리학교 광고를 보니 여학생들이 머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커다란 학교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복장규정을 새로 바꾸고 나서 총학생회 산하 자율선도부를 구성했다. 2, 3학년 중 자원한 학생들을 모아 선도부를 구성하고, 선도 명찰을 만들어준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는데 선도부가 1, 2학년을 꼭 잡았기 때문에(선도부는 아침 8시 40분이면 자율적으로 모여 각 교실을 순회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나는 학생부장이 된 이래로 교문지도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3학년 중 새로운 복장규정을 어기는 놈들이 좀 있는 게 문제였지만 학생부가 담달을 안 하니 담임들이 나서서 지도를 했다. 그래도 제대 말년에는 군인들도 좀 봐주지 않던가? (혹시 학생부가 교문지도를 안 하면 할 일이 없을까봐 걱정인 어른들이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생부는 ‘학생규제부’나 ‘학생징계부’가 아니라 ‘학생복지문화부’의 역할을 해야하므로 할 일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올해도 나는 여전히 ‘무늬만’ 학생부장이 되었다. 제2대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나자 아이들은 대의원회의를 열어 복장규정의 ‘시행령’을 다소 손질했는데, 1. 복장규정을 어겨 누적된 경고는 학기가 지나면 전체 학생 모두 소멸해 주도록 하고 2. 여학생들의 머리끈과 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색깔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며 3. 3회 어길 시 경고, 5회까지 어기면 교내에 확대된 얼굴사진을 게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올해 1학기 중에도 몇 차례 얼굴 사진 포스터가 교문 앞에 나붙었다. 그게 무슨 영향이 있으랴 했지만 제 얼굴이 포스터

로 나뉜 녀석들은 “학교 오기가 창피해 못살겠어요”라고 하소연을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규율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학교규율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규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사회와 청소년의 의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규율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생생활에 관한 규율들은 “학생 징계규정” 혹은 “학생 선도규정” 그리고 “복장규정”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학생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안하고 교장이 결재를 통해 승인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학생에게는 학교규율이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과정 어디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국가의 절대적 권력이 해체되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고 있는 현 사회변화에 맞추어 전근대적인 학교규율도 대대적으로 손질되어야 마땅하고, 규율의 제정이나 집행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끊임없는 간섭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규율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일선교사들의 학생관도 바뀌어야 한다. 붕괴되어 마땅한 학교의 구체제 속에서 학생은 훈육의 대상이며,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대상이었다. 이제 억압적인 국가기구나

관료체제의 해체가 불가피한 세상이 되었다. 교사 학생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훈육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인간 관계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3. C시 B여자 고등학교

충청남도 C시에 위치한 B여고는 사립학교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학교 규율을 자율적으로 제정해 온 학교이다. 이 학교는 학교 규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한 후, 학생회에서 자율 제정된 원칙을 가지고, 교사들이 그것과 관련한 원칙을 토의로써 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전에는 단색의 양말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색상있는 양말을 허용하고, 다양한 모양의 운동화의 착용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두발과 관련해서는 단발 또는 끈으로 묶는 것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길이 제한을 완화하고 머리띠의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교복 상의안에 블라우스나 목 티셔츠도 허용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남교사는 면접을 통해 “학교 규율이 자율 제정된 이후에도 학교규율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지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정한 느낌을 주는 용모 및 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타학교에 비해 오래 전부터 학교규율을 자율적으로 제정해온 이 학교 경우, 학교규율은 학생들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 학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4. 사이버공간의 두발자유화 운동

학생들의 자율규율에 대한 요구는 2000년 사이버공간에서 매우 뜨거운 토론장으로 옮겨왔다. 중고등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http://students.wo.ro/>)’을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두발자유화를 위한 자율규율 제정 운동을 촉구하였다. 다음에 소개된 해당 홈페이지의 취지문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자율적 개체로서의 학교규율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연대를 이루어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학생연합’은 학력/학벌 차별의 풍토 속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청소년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무제한적인 인권 침해를 받아온 학생들의 인권과 왜곡된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전국 중고등 학생들의 연합 조직입니다.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준)은 ‘학생연합’을 만들기 위한 모임입니다. 비록 정식 출범전의 ‘준비모임’이지만 우리 ‘학생연합(준)’은 모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부터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 제도를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학생연합은 “두발·복장 제한, 체벌 등 교내에서 자행되는 청소년 인권 유린과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이 고려되지 않는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2000년 4월 준비모임을 가진 이후 결성

되었으며, 실제로는 1995년 창설된 최초의 '청소년이 주체, 청소년이 운영, 청소년이 만든 청소년 인권·교육단체' 학생복지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로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생회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2000년 여름 방학 기간 서울의 명동·대학로에서 캠페인과 시위를 벌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원 아래 '학교 인권 지표'를 개발하는 데 직접 참여하였으며 유네스코(미지센터) 내에서 청소년 인권센터를 운영중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공명선거 실천 연대 토론회- 서울시 교육, 이대로 좋은가'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교육운동에 참여하고,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등 대표적 인권·교육 단체와의 연대까지 그 활동의 폭을 넓혀 왔다.

이 학생연합은 2000년 9월 두발제한 철폐운동을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펼쳤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준비한 바 있다.

<세부 내용>

1. 공동 기획단의 구성

2. 각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 교내에 '의견수렴함' 설치.

두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는 대자보 설치.

2단계 : 각 교실 뒤에 낙서판 및 대자보 설치 학생회의 설문조사.

3단계 :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교와 함께 하는 두발 규제 토론회

4단계 : 학교운영위원회등에 출석요구,

학칙 개정에 직접 관여. 만약 불가능하면 '총투표' 실시

3.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

- 학생회 강화
- 두발제한 철폐 요구 및 두발자유화 선언.
- 학생자치 선언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가
- 각종 교육법·교육법 시행령 개정
-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 인권 보장
- 교육에 있어 청소년 주체 선언
- 입시 위주 교육 거부, 학생이 주인이 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 지향

학생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로 하여금 두발자유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사이버 공간에 올려졌던 한 학생의 의견을 게재한다.

[제안!] 두발 규제 철폐 전략입니다!!!

작성 날짜: 2000/09/14

작성자 : 누니

두발 규제 철폐전략

이 글은 학생연합(<http://students.wo.ro>)(02-755-8025)의 누니에 의해 씌어졌으며, 아무테나 퍼가셔도 상관없지만, 내용의 수정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퍼가실때는 글쓴이의 이름과 소속을 밝혀주세요.

문의사항은 nuni96@dreamwiz.com이나

sure_union10@yahoo.co.kr로 보내주세요.

서명운동으로는 두발 규제를 없앨 수 없습니다. 여론 형성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굼뜨게 움직이는 건 빨리 폐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 압력은, 계속 다른 어른들에게 “폐지시켜줘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은 안 들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직접 폐지시킵시다. 그 힘은 학생들의 지지입니다!! 각 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전국의 학교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 학교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각 단계는 꼭 순서대로가 아니고, 각 학교의 분위기를 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1) 학생회가 아주 힘이 약한 경우는 학생회 이름으로 ‘의견 건의함’을 만들고, 학생회가 그나마 조금 자율적인 경우에는 건의함을 만들면서 아쁜 종이에 눈에 잘 띄게 “용의 규정등에 대한 제안도 받습니다~”고 써놓는다. 그리고, 반드시 건의된 내용을 직접 학생회 간부가 수거한 후 3일에 한번 정도 건의함이 있던 자리에 전지 위에 써 붙인다.(여론 형성)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두발 규제에 대한 건의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2) 호응이 좋으면, 학교 현관이나 로비등에 전지에 큰 글씨로 두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라는 것을 써서 알린다. (=> 이것을 ‘대자보’라고 함)

3)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학생회에서 학생주임이나 교장선

생님께 직접 건의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절당했는지, 어떤 건의를 했는지를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2단계 :

1) 각 반 반장들이나 대의원들과 이야기해서 교실 뒤에 '낙서판'이나 '(스티커)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는다.

2) 낙서판을 통해 각 반마다 여론을 형성하고, 선생님들께는 직접 학생들의 의사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3)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학생회에서 '두 발 규 제 에 대 한, 학 생 의 식 조 사'를 설문조사의 형태로 합니다. 각 반 HR시간에 하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두발 규제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등을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설문을 통한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설문조사나, 설문지 수거 등에는 절대로 '선생님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됩니다.(학교측에선 공개 안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선생님들이 수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학생회 간부나,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압수할 수 없는 곳에 숨겨놓아야 합니다.

3단계 :

1) 학생회의 주도로 '설문조사'를 공개합니다. 컴퓨터로 보기 좋게 출력을 하거나, 이쁜 글씨로 써서各班 게시판이나 학교로비, 현관문 등에 공지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설문조사 결과의 발표를 절대로 용인치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검

토자료로만 쓰자”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러서는 안됩니다. 차일 피일 미루면서 두발규제 폐지를 호지부
지 하게 할 것입니다.

2)만약 가능하다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학교
측과 '두발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보는 것도 좋겠습
니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면, 학교측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학생들과 공동의 대안
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학교와 토론
회를 여는 겁니다.

* 단!! 학교와 토론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토론회를
하기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할
때, 학생회 간부 한 두명이나 말 잘하는 학생 한 두명과 학교
선생님의 입씨름으로 변질되면 결코 대안도 나오지 않고, 학생
들의 지지도 받지 못합니다.

** 학교와 토론회를 열기 전에, 학생들끼리 따로 토론회를
열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 토론회에서 학교측은 당연히 '검토해보겠다!'내지는 머
리를 짜내서 천천히 바꿔보자~면서 시간을 끌 것입니다. 그런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
러지 말고 '두발 자율화'의 시한을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회에
서 '다음학기부터'두발 자율화 해요. 라는 식으로 기간을 딱
정해줘야 합니다.

****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합
시다. 그리고 두발 규제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어
떻게든 결정이 날 것입니다.

4단계 :

1) 학교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용의규정 소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칙을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만약,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발 자율화에 대한 약속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2) 학생회와 학생들의 힘으로 "총 투 표"를 합니다. 총투표의 내용은 '두발 규제 폐지해야 되는가? 아닌가?'의 찬반 투표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홍보를 잘합니다. 예상하건데,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률이 나오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대부분이 반대하면, 학교 측에선 도저히 두발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서지 않을 겁니다. 총투표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힘으로, 학생회가 주도해서 실시하고 개표도 직접 해야 합니다.

5단계 :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강 생각나는 것이 있지만 아직 이야기하기에는 때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위의 각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하고 학교의 탄압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탄압받는 학생들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준다면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회와 (전국적인) 연대를 구성한다면 결코, 함부로 징계나 벌점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 그리고, 전국 중고등 학생연합 준비위원회는 다른 학생회들과 함께 각 학교에서 힘들어하시는 학생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전교조와 연대해서 각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만약 징계나 벌점을 먹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법적인 방법이나, 다른 인권 단체와의 연대, 유엔에 보고하는 것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 각 학교 학생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9월 30일, 학생회 공동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학생회나,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 관심있으신 분들 모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준비위원회

<http://students.wo.ro>

누니 쏘.(nuni96@dreamwiz.com)

(공식이메일:sure_union10@yahoo.co.kr)

서울 s여고에서는 등교길 교문앞에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용의 복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속치마를 입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등교길에 속치마를 검사하는 것을 넘어서 교실에선 상의 속옷에 대한 검사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사라지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보여줘야 하는 광경은 '학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가슴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권에 대한 침해가 심한 학교는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그래서 더욱 문제인!) 인권 침해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체벌, 두발 제한, 소지품 검사, 일기 장이나 수첩, 핸드폰을 압수하는 일들. 이렇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권리' 등이 광범위하게 침해받는 것이 현재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인권 침해가 더욱 문제인 것은 그것들이 모두 '교육'이란 이름 하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육'과 '학생의 권리'는 함께 존재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학생의 인권 신장은 '한 인간의 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학칙'이나 학생부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학칙'의 내용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지며,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법'을 실제로 교육부가 시행하기 위해서 내리는 구체적인 명령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칙을 감독한다 할지라도 학생인권을 지킬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 교육법이 학생을 교육과 감독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권리의 주체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학칙, 학생선도규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해 교육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을 권리와 교육의 주체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입시에 찌들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5. 사례분석에서 얻은 시사점

학교규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서울의 J중학교와 지방에 위치한 M중학교, 그리고 C시에 위치한 B여자고등학교의 사례, 2000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 “두발자유화운동”을 중심으로 학교규율 자율 제정의 과정 및 학생들의 반응, 앞으로의 개선책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규율 자율 제정 과정

학교 규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학교들의 자율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중학교의 경우, 두발 복장 자율화에 대한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1999년부터 학교 규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전교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설문을 조사한 후, 학생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학급회의 시간에 보고하였으며, 대의원회의에서 결의 다지기를 통해 결과를 공포하고 이를 학교장이 선포한 후, 전교생이 실천하고 있다.

B여자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한 후, 교사들이 원칙을 토의하고 학생회를 통해 제정하고 있다.

나. 자율 제정으로 바뀐 주요 규율들

B여자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규율 자율 제정 이후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양말과 신발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발 머리와 긴머리 가

운데 택할 수 있고, 긴머리는 묶을 수 있고, 머리띠와 머리핀의 착용을 허용하며, 교복 상의내에 블라우스와 목티셔츠의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도 이전의 학교규율보다는 규제의 정도가 훨씬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규칙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학교 규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 학교 자율 규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태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위반 학생들도 있지만, 완화된 규제이므로 규율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져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것은 규율은 잘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자율 규율의 문제점

면접 결과 J중학교 교사는 두발 자율화로 머리를 길게 기르는 학생들이 많아 머리 길이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B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는 규율이 학생회에서 제정되었다고 하나, 구두굽이나 머리의 길이를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하게만 보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규율의 내용, 구체적으로 두발 하나만 보더라도 교사는 규제의 제한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학생은 허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향후 보완이나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있어서는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마. 자율 규율 제정과 시행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보완 사항

면접 결과 교사, 학생 모두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스스로 잘못 된 점을 느끼고 고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학교 자율 제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학생-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과 단정한 용모 콘테스트를 매년 2회 정도 개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바. 학교 규율 자율 제정 운동을 위한 방안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규율을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며, 개성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내면적인 재능을 기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사회의 규율은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인식하고, 자율에 따르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들 또한 학생들에 대한 통제위주의 선도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에게 자율 제정된 규율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율적인 규정을 만들어 성공한 다른 학교의 예를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V. 학교 규율 자율화를 위한 정책 논의

V. 학교 규율 자율화를 위한 정책 논의

중·고등학생들의 두발 자율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0년 8월초 학생들은 거리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섰고,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는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두발 길이 및 염색에 대한 지침 등 규제는 없으나 학교장이 재량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 서울 시내 353개 중학교와 270개 고등학교 중 두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들은 지난 1983년 취해진 두발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3cm 이내’, ‘귀밑 1cm 이내’ 등으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8월 9일 여름 방학 개학과 함께 일선 학교에 ‘학교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 두발 제한 등 각종 학교 규칙을 새로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문화일보, 2000, 8, 10일자).

이제 학교마다 학칙을 둘러싼 갈등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단위학교에서 학칙의 제정 및 적용과 관련된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나 있고, 그것이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파급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중고등학생들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운동의 차원으로 까지 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http://students.wo.ro/>)”

이나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준)(<http://hymosinterpia98.net/~student/index.html>)” 등은 본격적으로 학교규율과 관련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규율과 관련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간, 부모와 학생간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학교 규율 자율 제정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청회나 토론회의 조직

규율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각 단위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조직한다. 이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2) 교사 연수

규율과 관련하여 교사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학생이 참여하는 학칙을 만들기 위한 교사 연수는 일방 강의식이 아닌 연수를 받고 의식과 실천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잘 짜여진 질높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각 교육청은 이러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학부모 연수 및 홍보

우리 나라에서는 학부모 연수 특히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연수에 대해 거의 무관심이나 소극적이다. 학교 규율에 대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홍보 및 연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모범 사례의 선전 및 보급

학교 규율 자율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나 토론회 및 연수를 통하여 모범 사례의 선전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흔히 사례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집만 보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 이해에 그치는 수가 많으므로 단순히 사례집만을 배포하기보다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모범 사례를 선전하는 것이 학교 규율 자율 제정의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본다.

(5) 학생활동의 적극적 보장

자율적인 학교 규율을 제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참여이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것은 민주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의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생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학생 참여 검토

학교 규율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화되지 않으면 민주적인 학칙의 제정은 불가하다. 아울러 학교 규율에 관한 심의사항에 관해서는 학생들도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진경(2000). 아이들은 학교거부를 통해 무엇을 거부하고 있나, 당대비평, 통권 10호 (2000년 봄호)
- 노혜련(1995).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21호(95.6). pp. 17-32.
- 당대비평 1999년 겨울호, 특집 『우리안의 파시즘 2 : 억압과 규율에서 자율과 연대로』
- 배경내(1998).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춘석 편역(1998). 세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결의들. 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청년원.
- 이명숙(1995). 청소년생활법률의 이론적 기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지현(1999).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당대비평, 통권 8호(1999년 가을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1990). 학생자치활동 1. 2. 서울: 푸른나무.
- 정기원, 오미영(1994).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해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천세영 외(1999).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최충욱(1991).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소외.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2000년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pp. 46-54.
- 教育思想史學會(2000), 『教育思想事前』, 勁草書房.

-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a comparative perspective*. Brookfield, Vermont: Dartmouth.
- Kahane, Reuven(1997). *The origins of postmodern youth: Informal youth movement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Walter de Gruyter.

부 록

1. J중학교 자율 규율 제정 운동 관련 자료 모음

학생회 대의원회 개최 공고

J중학교 학생회의 '99학년도 제1회 대의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 반 학생들은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들이
대의원회에 참가하여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
도록 학급회의를 통해 미리 좋은 의견을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9년 3월 31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1-4반 교실

☐ 참석자 : 각 반 회장과 부회장

☐ 토의할 안건

1. 학생회 집행 부서 조직 및 책임자 선정
2. 두발과 복장 규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학생회 활동 활성화 방안 - 학생회 활동 계
획 수립
4. 학급 활동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5. 기타 건의 사항

1999년 3월 30일

J중 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

설문지 및 설문 분석 결과

1. 학생들의 두발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학생은 스포츠 머리 형태로 앞머리는 3cm까지 허용한다.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귀밑 3cm까지 허용한다.(현행)(71 : 20%)

② 남학생은 앞머리는 눈밑 2cm, 옆머리는 귀밑, 뒷머리는 묶여지지 않는 정도로 허용한다.

여학생은 어깨 아래 15cm까지 허용한다. (149 : 38%)

③ 자기 체형에 맞는 단정한 머리로 하되 남·여학생 모두 머리 길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는다. (152 : 39%)

④ 기타 의견()

2. 머리에 무스, 젤, 스프레이, 염색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어떠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된다.(현행)(258 : 67%)

② 무스, 젤, 스프레이만 허용한다.(102 : 26%)

③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17 : 4%)

④ 기타 의견()

3. 학생들의 신발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두는 굽이 없는 학생용, 운동화는 흰색, 검정색, 남색, 갈색 운동화만 허용한다. (현행)(134 : 34%)

② 구두는 굽이 3cm까지의 학생용, 운동화의 색은 자유로이 허용한다. (220 : 56%)

③ 기타 ()

4. 여학생 블라우스와 머리핀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블라우스는 흰색, 머리핀은 검정색만 허용한다.(현행)(176 : 46%)

② 블라우스는 흰색, 베이지색, 핑크색, 머리핀의 색깔은 자유로이 허용한다. (185 : 48%)

③ 기타 의견 ()

5. 여학생들이 메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어떠한 종류의 메니큐어도 허용해서는 안된다.(현행)(246 : 63%)

②투명색 메니큐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138 : 33%)

③자유롭게 허용해야 된다.(4 : 4%)

학생회 대의원회 개최 공고

J중학교 학생회 대의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 반 학생들은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들이 대의원회에 참가하여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5월 24일의 학급회의 시간에 미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회장단이 학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 1999년 5월 24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1-7반 교실

☐ 참석자 : 각 반 회장, 부회장(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할 것)

☐ 토의할 안건

1. 학교 폭력과 집단괴롭힘(따돌림) 추방 방안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학생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집단괴롭힘을 주도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 것인가?

2. 복장과 두발에 관해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한 학교 규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만든 규정을 모든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처벌만이 아니라 상을 주는 방안 쪽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처벌을 하는 것이 좋을까?

3.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1999년 5월 20일

J 중 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 ○ ○

용의 · 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3학년 도덕과 논술형 시험문제

■ 3학년 도덕과 1학기 중간고사 - 1999년 5월 10일 2교시 시행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용의복장을 자율화하되, 무쓰·스프레이·원색적인 스타킹·귀걸이나 메니큐어 등은 금지한다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들의 요구→학생회장의 선거 공약→학생회 대의원회에서의 논의→선생님들의 자문→설문지 만들기→학생·학부모·교사대상 설문조사 및 통계→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학급회의의 실천 방안 토론→대의원회에서의 실천 방안 마련→학교 규정의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정한 차림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함께 만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모두의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든 소중한 규정을 어기는 학생들이 가끔 있지만, 그들도 자신을 때문에 용의복장 규정이 예전의 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복장 자율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리면 고칠 수 있도록 꼭 연필로 쓰세요.

1. 선생님들께서 결정해 발표할 수도 있고, 전교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위와 같이 함께 결정한 사항을 잘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 선생님이나 대의원들이 결정해 발표한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40점)
 2.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이나 전교생이 공동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실천 과제를 한 가지 찾아내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써 보시오.(자신이 책임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써보세요)
- 예)남을 존중하는 태도 갖기, 실내 정숙, 교실 바닥에 점이나 침뱉는 문제, 환경

보호, 자원절약 운동, 집단 괴롭힘 등 --- (40점)

■ 3학년 도덕과 2학기 중간고사 - 1999년 10월 8일 1교시 시행

[문제 2] 다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득하는 글을 써 보시오.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생각해 보면서 쓸 것이며,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써도 좋음. (50점)

☞ 우리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모아서 정한 교칙, 즉, “머리 길이는 자유로 하되, 무쓰나 스포레이를 바르지 않으며, 머리가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단정하게 묶는다. 반지나 팔찌,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다”는 교칙을 마음대로 어기는 친구를 설득하는 글.

11월 1일 학급회의 토의 자료

‘용의 복장 관련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졌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J중학교 학생회장 ○○○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예전보다 자율화 된 두발과 복장에 관한 규정을 지키며,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학생회장 선거 공약과 대의원회에서 건의 등을 통해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를 강하게 요구했었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시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5~6개월 동안 지켜본 뒤에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라는 단서를 달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자율화된 용의복장 관련 규정(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 머리 모양은 자기 체형에 맞는 단정한 머리로 하되,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단정하게 묶는다.
- 머리에 무쓰, 젤, 스프레이, 염색 등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 신발은, 구두는 굽이 3cm까지의 학생용을 허용하며, 운동화의 색은 자유로이 한다.
- 여학생 블라우스는 흰색, 베이지 색, 핑크 색을 허용하며, 머리핀의 색깔은 자유로이 한다.
- 손톱에는 어떠한 종류의 메니큐어도 발라서는 안된다.

위와 같이 자율화한 덕분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다른 어느 학교 학생들보다 자유로운 가운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대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과연 우리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들 스스로 만들었던 규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우리들 자신과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했던 약속이 올바르게 지켜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율화를 유지해야 할 지, 아니면 예전 규정으로 돌아가야 할 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의 복장 자율화를 계속 할 지, 예전과 같이 규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 지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회 대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려고 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반의 학급회의를 통해서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 토의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전교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대상으로,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한다.
3. 학급회의와 설문 결과를 모아 '학생회의 건의사항'으로 정리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학급회의에서 토의할 사항 (결과는 학급회의록에 기록하여 전교 대의원회에 보고합니다.)

여러분은 자율화된 학교 교칙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소중한 교칙을 짓밟아버린 친구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만일, 앞으로도 자율화가 계속된다면 교칙(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1. 우리 학급에서는 자율화된 용의 복장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 우리 반에서 교칙을 잘 지킨 친구는 누구이며, 자주 위반했던 친구는 누구인가?
 - 자율화 된 위의 5가지 교칙 가운데서 우리 반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인가?
2.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였는가?
 - 그 동안 교칙을 자주 어겼던 친구들이 있다면, 왜 그래야 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3. 앞으로 또 교칙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교칙 위반자를 처리하는 방법, 교칙을 스스로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J중학교 학생회

용의 복장에 관한 2차 설문 및 결과 통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J중학교 학생회장 ○○○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두발과 복장에 관한 규정이 보다 자유롭게 완화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의 건의를 받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5~6개월 동안 지켜본 뒤에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 자율화를 인정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학생들은 지금까지 보다 자유롭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한대로 6개월이 지났고, 과연 장승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개정된 용의 복장 규정을 잘 지켰는지(자율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 학생회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어보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학생들의 용의복장에 대해서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래 문항들에 답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학생회 건의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 11. 4.

J중학교 학생회장 ○○○

※ 다음 문항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읽고 의논하신 뒤에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된 번호에 O표를 해서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머리의 길이에 대해서는 '자기 체형에 맞는 단정한 머리로 하되, 머리가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단정하게 묶는다'로 정하여 실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두발 규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① 그런 대로 잘 지켜졌으므로 지금의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359) - 78.3%
- ②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예전과 같은 규정으로)(33) - 7.2%

-남학생은 스포츠 머리로 앞머리 3cm까지 허용하며,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귀밑 3cm까지 허용한다.

③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66) - 13.9%

-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 위까지 허용하며, 옆머리는 깔끔하게 짧게 자르도록 한다.

- 여학생 : 어깨까지만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④ 기타의견()

2. 머리에 무스, 젤, 스프레이, 염색 등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정하여 실천해왔습니다. 이 규칙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 지켜졌으므로 지금의 규정대로 해도 좋을 것 같다.(309) - 68.2%

② 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두발 규정을 엄격히 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144) - 22.7%

3. 학생들의 신발 규정은 '구두는 굽이 3cm까지의 학생용, 운동화의 색은 자유로이 허용한다' 로 정하여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 신발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① 그런 대로 잘 지켜졌으므로 지금의 규정대로 해도 좋을 것 같다.(488) - 90.8%

② 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예전의 규정으로 되돌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49) - 9.1%

-예전 규정 : 구두는 굽이 없는 학생용, 운동화는 흰색, 검정색, 남색, 감색 운동화만 허용한다..

③ 기타 의견()

4. 여학생 블라우스와 머리핀에 관한 규정은 '블라우스는 흰색, 베이지색, 핑크 색, 머리핀의 색깔은 자유로이 허용한다' 로 정하여 실천

해왔습니다. 앞으로 여학생 블라우스와 머리핀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① 그런 대로 잘 지켜졌으니 지금의 규정대로 해도 좋을 것 같다.(401) - 85.1%
- ② 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예전의 규정으로 되돌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70) - 14.9%
- 예전 규정 : 블라우스는 흰색, 머리핀은 검정색만 허용한다.
- ③ 기타 의견()

5. 여학생들이 메니큐어를 바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메니큐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로 정하여 실천해왔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① 잘 지켜졌으므로 지금의 규정대로 해도 좋을 것 같다.(322) - 67.3%
- ② 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손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156) - 32.6%

6. 여학생 중에는 상의 외투나 치마를 변형시켜 입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과 주민들로부터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투나 치마가 몸에 달라붙도록 줄여 입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학생답지 못한 복장이므로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386) - 86.7%
- ② 자유롭게 변형시켜서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59) - 13.3%
- ③ 기타 의견()

7. 그밖에 학생의 용의복장과 관련하여 특별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응답
확인서에 날인하신 뒤 해당 학급의 회장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출 마감 :11월 6일)

J중학교 학생회장 ○ ○ ○ 올림

설문 결과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11. 12)

□11월 12일에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 확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1. 그 동안 시행해 왔던 부분 자율화된 규정을 그대로 확정한다.
 - 단,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킨다.
2. 학생들은 학급회와 학생회를 통해 새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게 할 방안을 마련해 함께 지켜야 한다.
3. 향후, 확정된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지도한다.
 - 화장하는 학생,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 등

향후 용의복장 관련 지도 관점

- 용의 복장의 부분 자율화는 장승인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므로 성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 우리 학교의 전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의견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규정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
-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함께 마련한 규칙을 위반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 우리가 만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행위임.
-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훈화와 위반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학급회의나 학생회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용의 복장에 자율화 실천을 위한 대의원회 자료

1999. 11. 18.(목) 장승중 학생회

1. 안건 : 『용의복장 자율화에 따른 실천 방안 결정』

- ① 자율화된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②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자가 나타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율적인 규제 방안, 벌칙 등)

□ 참고사항

- 경과 : 학생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용의복장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의복장 자율화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단, 『학생회와 학급회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 오늘 대의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11월 22일의 학급회를 거쳐 모든 학급에서 빠짐 없이 실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우리의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급별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용의 복장에 자율화 실천을 위한 학급회의 자료

1999. 11. 22.(월) 장승중 학생회

1. 안전 : 용의복장 자율화 확정에 따른 학급별 실천 방안 결정

① 자율화된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② 용의 복장 규정 위반자가 나타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학급별 규제 방안, 벌칙 등)

※ 학급별로 진지하게 토의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마련한 소중한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위반했던 친구들도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 경과 보고 _____

1. 지난 11월 12일에 학생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용의복장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의복장 자율화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들께서는, 『학생회와 학급회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2. 지난 11월 18일에는 우리 학교 대의원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회에서는 확정된 자율화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 학급별로 잘 지킨 학생과 위반 학생을 뽑는다.
- 위반 학생들만 예전 규정으로 되돌려 규제한다.
- 벌금제를 실시한다.
- 방과후에 벌을 세운다. 등.
- 교내 봉사활동을 시킨다.(도서실 정리 등)

<학생회장 공고문>

자랑스런 장승의 전통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장승중 학우 여러분! 길 것만 같았던 '99학년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새 학기가 돌아옴을 알리는 봄방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생회는 학생회장 선거 공약과 학생들의 건의(두발복장 자율화, 건의함 설치, 자판기 설치, 점심시간 분식점 출입 허용, 실용적인 학생회 조직 및 활용,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축제 찬조금 모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중 자판기 설치와 점심시간 분식점 출입 허용 등의 건의는 자판기 관리의 문제와 쓰레기 발생 문제,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교 이탈자 발생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현이 어려웠지만, 나머지 건의는 대부분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련축제날의 야간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바람은 많았으나 선생님들의 걱정하시는 의견도 많아 실현시킬 수 없었습니다. 미해결된 건의들은 2000학년도 학생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서툰 저와 학생회 임원들이 1년 동안 했던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두발과 복장 자율화를 실현한 일입니다. 처음엔 “무슨 두발 자율화냐? 학생들이 머리를 멋대로 기르다니...” 라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잘 할 수 있다는 학생여러분들의 약속과, 여러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는 마침내 자율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때, 우리가 함께 정한 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소수의 위반자들로 인해서, 힘들게 얻은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릴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의위원회와 학급회의에서 실천을 약속했고, 더 많은 학생들은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겨울 방학 개학 후,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장발을 한 학생, 울긋불긋 머리에 염색을 하고 온 학

생,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한 학생 등 우리가 정한 규정과는 정반대로 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99년도 이전의 형태로 자른다』는 벌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칙이 두려워서 억지로 지켜야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자율이라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게 얻은 우리들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의 자유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 모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신입생들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아 3월이면 지금의 1,2학년들은 한 학년씩 올라간 선배가 되고, 1학년 신입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1,2학년들은 우리가 얻어낸 귀중한 자유와 자율이 J중학교의 자랑스런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솔선 수범하여 잘 지키고, 후배들에게는 더욱 더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학년 선배들도 졸업하는 날까지 후배들에게 선배다운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우리 모두의 정성으로 만들어 낸 우리의 자유가 잘 지켜져, 장승인 모두의 자량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며 이 글을 끝마치겠습니다.

2000. 2. 9.

J중학교 학생회장 ○○○ 드림

2000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정책 연구 보고서】

- 00-R01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이종원 · 주동범 · 서정아)
- 00-R02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주동범 · 이동원)
- 00-R03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정희욱 · 길은배 · 김정래)
- 00-R04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이광호 · 맹영임 · 임성택)
- 00-R05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임성택 · 김영한 · 장동현)
- 00-R06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최원기 · 김창남 · 전경숙)
- 00-R07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방안 연구(윤철경 · 이상오 · 김경준)
- 00-R08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성수 · 김경준 · 전경숙)
- 00-R09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중 ·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이철위 · 박창남 · 정혜영)
- 00-R1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한준상 · 이춘화 · 윤옥경)
- 00-R11 현안 청소년문제 분석 연구-청소년 사이버일탈과 비행이론의 적용-(천정웅 · 한상철 · 임지연)
- 00-R12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실태와 대책 연구(김문조 · 윤옥경 · 이춘화)
- 00-R13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연구(이용교 · 이해연 · 박영균)
- 00-R14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박영균 · 김정렬 · 이해연)
- 00-R15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실태 조사 연구(김정배 · 정익재)

- 00-R16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신장 방안 연구
(조은 · 김영지 · 김희진)
- 00-R17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
간의 관계 : 비교문화연구 (장미경)
- 00-R18 학교실패 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김민)
- 00-R19 가상현실의 형성과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정용교)
- 00-R20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 연구-인터넷 미
디어교육 시안제시를 중심으로- (김기태)
- 00-R21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실태 연구(황진구)
- 00-R22 청소년의 웹진(Webzine)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김
영지)
- 00-R23 소도시 청소년의 사회계층의식의 이해 유형에 대한 탐구-경
계적 불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김경모)
- 00-R24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자녀지도의 기본원리(김성일)
- 00-R25 청소년육구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지도방법 연구 (김문섭)
- 00-R26 제2차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함병수 · 이종원 · 길
은배 · 주동범 · 서정아)
- 00-R27 세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청소년의 비교-(윤철경 · 전경숙 · 최원기 · 김경준 · 주동범)
- 00-R28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운영 방안 연구(함병수 · 주동범 · 최원
기 · 김혁진 · 권이중 · 이철위 · 정재희 · 전동익)
- 00-R29 한국청소년중앙공원과 독립기념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권이중)
- 00-R30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교류프로그램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이철위)
- 00-R31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시설안전 및 환경위생관리 지침(정재
희 · 전동익)
- 00-R32 한국청소년중앙공원 홍보용 홈페이지 개발